

작년 제조업 공급 3년째 감소...코로나19로 최대 감소폭

통계청 '2020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발표

자본재 7.5% 증가...반도체 업종 및 국내 선박 증가 영향

코로나19로 화장품·의류 등 소비재 0.3↓...사상 첫 감소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이 3년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에 수출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보면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3.6(2015=100)으로 전년도보다 0.9% 감소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한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국산은 전자제품, 1차 금속 등이 줄어 2.3% 감소했고 수입은 전자제품, 기계장비 등이 늘어 2.6% 증가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은 국산과 수입을 포함해 제조업 제품이 국내에 공급된 흐름을 품목별 실질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다. 내수 시장 전체의 동향과 구조 변화 등을 공급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제조업 국내공급은 2017년 4.2%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8년 -0.7%로 관련 통계 집계 이

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9년(-0.8%)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줄었으며 감소 폭은 해마다 커졌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조업 국내공급이 감소했다"며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간재 국내공급이 줄었고, 코로나로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공급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종재 국내공급은 전년도보다 2.8% 증가하며 3년 만에 오름세를 돌아섰다. 자본재가 7.5%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자본재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금형 등 각종 기계류와 선박, 트럭, 버스 등 운송 장비가 포함된다.

김 과장은 "자본재는 설비투자과 연관이 있는데 지난해 반도체 업종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며 "국내 선박도 증가했는데, 국내 선박의 경우 규모가 크다 보니 변동 폭이 컸다"고 말했다.

휴대폰, 승용차, 휘발유, 의류, 식료품, 화장

품 등 소비재 공급은 0.3%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화장품, 의류 등에서 많이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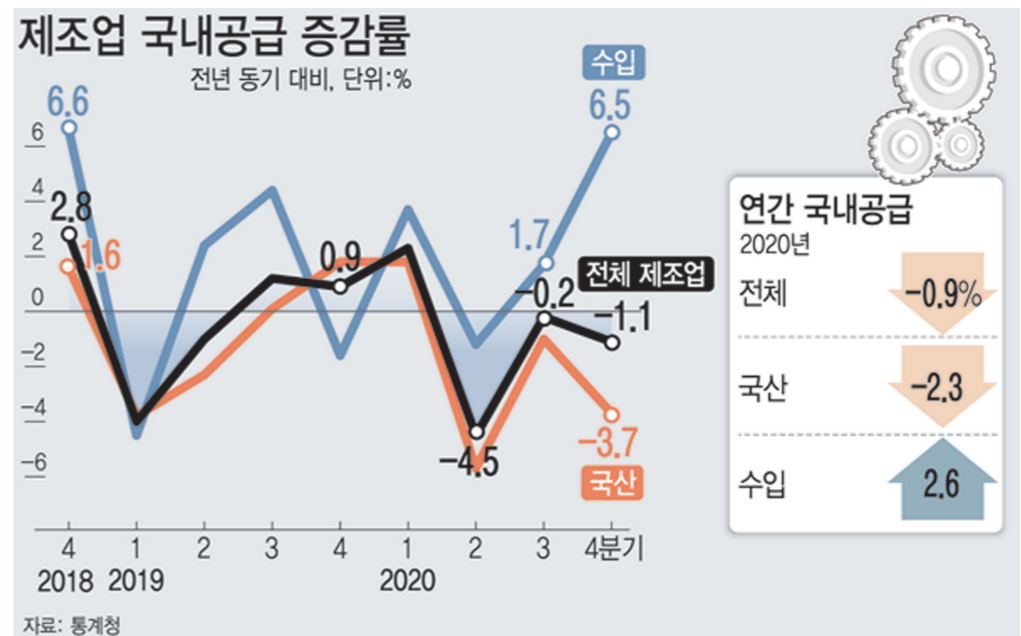
소비재 공급이 줄어든 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광공업 등 산업의 원재료, 원료, 부품 등으로 투입되는 중간재 국내공급은 3.4% 쪼그라들었다. 2018년(-0.2%), 2019년(-0.7%)에 이어 3년째 내림세다. 감소 폭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는 7.0% 증가하며 3년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1차 금속과 금속가공은 각각 8.0%, 4.9% 감소했다. 금속가공은 2017년(-2.3%), 2018년(-4.9%), 2019년(-1.9%)에 이어 4년째 뒷걸음질했다.

전체 제조업 국내공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27.3%를 기록했다. 무역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점유비가 상승하는 추세고 국내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재의 수입점유비는 29.6%로 전년도보다 1.8%포인트(p) 상승했으며 중간재는 25.5%로 0.2%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60.0%), 기계장비(32.5%), 석유정제(29.4%) 비중이 1년 전보다 늘었으며 1차 금속(24.5%)은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수입은 늘었으나 국산이 줄어 전년 동기보다 1.1% 감소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은 작년 1분기 2.3% 증



가했으며 2분기(-4.5%)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나 3분기(-0.2%) 감소 폭이 축소됐으나 4분기(-1.1%)에 다시 확대된 모습이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조업일수가 이를 정도 줄어든 영향이 컸다.

최종재는 3.7% 감소했다. 소비재가 휴대용 전화기, 내비게이션 등에서 1.2% 감소한 데다가 컨테이너선, 전력선 등 자본재가 7.3% 감소한 탓이다. 중간재는 시스템반도체, D램 등이 증가하면서 0.9% 늘었다. 업종별로는 기

계장비(8.0%) 등은 증가했으나 기타운송장비(-52.2%), 석유정제(-11.9%), 의복 및 모피(-11.2%) 등은 감소했다.

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전년도보다 1.3%p 상승했다. 최종재가 전년도보다 4.1%p 상승한 30.4%로 조사됐다. 소비재(27.8%), 자본재(34.3%)도 각각 1.3%p, 8.2%p 상승했다. 중간재는 24.2%로 전년도보다 0.7%p 하락했다.

서선욱기자

설만 난무했던 현대차-애플카 협업...중단 배경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8일 애플과 '애플카'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날 오전 9시께 일제히 공시를 내고, 올 초부터 제기돼온 '애플카' 관련 논의가 중단됐음을 확인했다.

현대차는 이날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아 역시 "당사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현대차그룹과 애플의 협업설은 올해 초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애플이 2014년부터 추진해온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타이탄'을 재가동 '애플카' 생산을 추진하며 현대차그룹에 협력을 제안하고, 협상이 제안 중이라는 지난

애플 과도한 비밀주의...현대차는 주도권 우려

달 8일 국내 언론보도가 시작이었다.

보도와 함께 현대차그룹 주가가 치솟자 현대차는 곧바로 공시를 내고 "당사는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당시 비밀 준수를 중시하는 애플이 현대차그룹에 애플카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에는 현대차그룹이 내부적으로 기아가 애플카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설이 흘러나왔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자사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에 집중하고, 기아가 미국 조지아공장을 거점으로 애플카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당시에도 현대차그룹은 "초기단계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공식 입장만 내놨다.

이달 들어서는 애플과 기아의 '애플카' 협업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외신보도가 잇달았다.

CNBC는 4일(현지시간) 북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기아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애플은 2024년까지 전기차인 '애플카'를 선보일 계획이지만, 최종 출시는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CNBC는 "현대-기아차가 애플의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라며 "다른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보도했다.

귀명치 대만 텐평국제증권 연구원 역시 지난 2일 보고서에 "애플카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부품 설계와 생산을 주도하고 기아가 미국에서 생산을 담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귀명치 연구원은 애플카 출시 시기가 2025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기존 공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장은 애플의 유명한 '비밀주의',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미 수조원을 투자한 현대차그룹의 주도권 상실 우려가 양사간 논의 중단을 불러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한 소식통을 인용, 애플과 현대차-기아의 논의가 최근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애플이 최근 현대차와 기아 외에도 다른 완성차업체들과 비슷한 계획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도 밝혔다. 통신은 개발 프로젝트를 수년간 비밀로 유지하는 애플이 현대차의 1월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화가 났을 것이라며, 논의가 재개될지, 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 불분명하다고 전망했다.

김민정기자

설 선물세트, 2030은 질로 4050은 양으로

이베이코리아, 설 선물 빅데이터 분석 결과

설 선물 준비에 2030세대는 지난해보다 더 비싼 제품을, 4050세대는 더 많은 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의 설 선물 판매 데이터를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2030 소비자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

반면 4050 소비자는 선물 구매량을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설 연휴를 열흘 앞둔 한 주(1월26일~2월1일) 동안 판매된 전체 설 선물 판매량은 지난 설 연휴 같은 기간(1월8일~1월14일)에 비해 17% 늘었다.

이 가운데 50대와 40대 고객이 각각 31%, 21% 증가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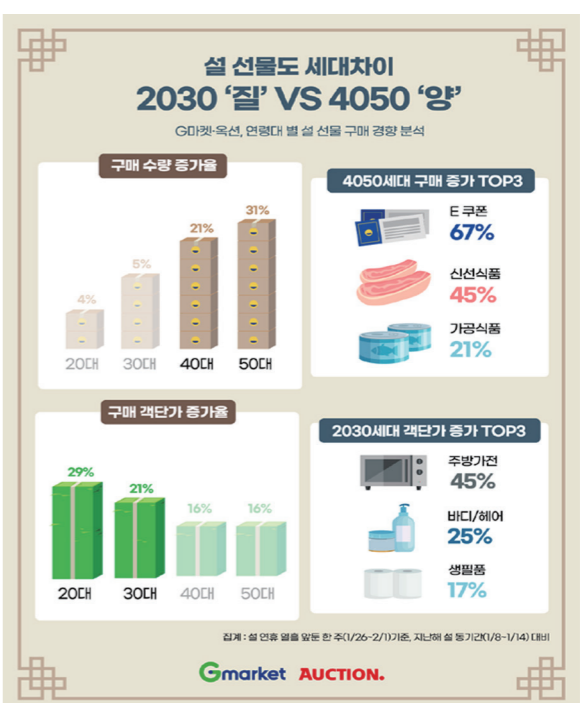
이들 세대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e쿠폰으로 67%나 더 판매됐다.

만나지 못하는 지인들에게 부담없이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은 각각 45%, 21% 증가했다.

평균 구매 객단가의 경우 같은 기간 전체 18% 증가했는데, 판매량과는 달리 2030세대가 신장세를 주도했다.

실제 연령별 구매 객단가 상승률을 보면 20대는 29%, 30대는 21%씩 늘었다. 40대와 50대는 16% 씩 증가했다.

2030세대가 예산을 가장 높여 선물한 품목은 주방가전으로, 객단가가 45%나 높아졌다.



그 외에 바디/헤어 제품(25%), 생필품(17%), 건강식품(15%)의 객단가도 증가폭이 컸다.

김태수 이베이코리아 영업본부장은 "설 연휴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절 선물로 고향 방문을 대신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며 "판매 데이터는 2030세대는 부모님과 직계 가족에 집중하는 반면, 4050세대는 주변 친척까지 두루 챙기는 경향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유나기자

1월 공항 이용객 15% 감소...‘거리두기’ 이동자제 영향

인천·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 여객 314만명

전월과 전년대비 각각 14.6%와 76.7% 감소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 2.5, 비수도권 2.0)로 인해 올 1월 국내 공항 이용객이 전월과 비교해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신규 확진자수가 올 초까지 연일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지역간의 이동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공항공사에 고시한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1월 인천과 김포, 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을 이용한 항공승객은 313만8757명으로 집계됐다. 전월과 전년 같은기간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각각 14.6%와 76.7%가 감소했다. 전월과 전년 같은기간 이용객 수는 367만5700과 1345만302명이었다.

특히 이 기간 국내공항의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제주공항은 전월보다 19%가 감소한 104만5265명, 김포공항도 13.4%가 줄어든 104만413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제선 항공기가 집중된 인천국제공항도 영국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국가간 항공기 이동이 제한되면서 이 기간 이용객은 21만912명으로 전월 22만8226명과 비교해 7.5%가 감소했다.

국내 공항의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항공기 운항도 감소했다.

이 기간 국내 15개 공항을 운행한 항공편은 2만9683편으로 전월 3만7767편보다 21%가 감소했다.

공항별 항공기 운항수를 살펴보면 인천국



제공량이 전월대비 2.9% 감소한 1만160편 나타났다. 이어 제주공항 6825편(34% ↓), 김포 6741편(22% ↓), 김해 2802편(20% ↓)으로 조사됐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항공기 이용객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카카오, 임직원에 인당 455만원어치

자사주 보너스로 줬다...총 119억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보너스 지급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직원에게 자사주로 보너스를 준다.

카카오는 2020년 성과급과 별도로 모든 임직원에게 자사주 10주씩을 지급한다고 8일 공시했다.

취득 단가는 지난 5일 종가 기준인 45만 5000원으로, 1인당 455만원 정도이다. 지급 대상은 2619명, 총 지급 규모는 119억 원에 이른다.

카카오가 자사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회사가 지급한 주식은 일정 기간 팔지 못하고 맡겨야 하는 기간(보유예수 기간)이 없다. 따라서 주식을 받은 사람이 원하면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 회사의 지속적 성장에 발맞춰 모든 직원들이 한 방향을 보고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